

집니까”라든지 “근시가 치료되는 약이 있는지요?”라고 물어오는 경우가 많다.

당장 안보이니까 안경을 쓰긴 써야겠는데 안경을 벗을 수 있도록 치료하겠다는 이야기다. 그럴 때마다

이 편안한 상태에서 잘 보이는 안경이어야 하며 잘 보려고 노력하고 애를 써서 겨우 시력이 나오는 안경은 아무리 좋은 시력이 나와도 정확한 안경이라 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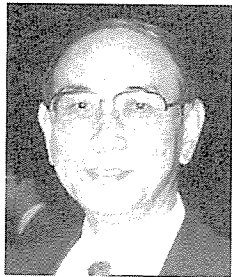
특히 처음 안경을 쓰는 사람은 어린이의 경우 조절마비제라는, 눈의 조절력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약을 점안하고 안경 도수를 측정해야 될 때가 많다.

개구장ীদের 안경 : 어린이의 안경 테는 무게가 가벼운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 한창 장난기가 심한 아이들이라 가벼우면서도 튼튼하고 얼굴 크기에 맞고 흘러내리지 않는 것을 고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안경의 도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눈의 시선이 안경 렌즈의 중심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좌우 눈동자의 동공거리를 재서 안경을 거기에 맞게 끼워야 된다. 시선이 렌즈 중심에서 벗어나면 프리즘 작용을 일으켜 물체가 휘어 보이거나 어지럽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눈도 편해야 하지만 귀가 아프다든지 잘 흘러내리면 안 된다. 즉 눈과 렌즈와의 거리가 너무 떨어져도 좋지 않고 가까워서 속눈썹이 렌즈에 닿아도 좋지 않다. 일반적으로 눈과 안경과의 사이는 15~12mm 정도가 좋다. 렌즈의 경사, 즉 렌즈와 얼굴이 이루는 각도는 근시안경같이 먼 곳을 보기 위한 것은 약 10°, 노안경같이 가까운 곳을 보기 위한 것은 15~20° 정도 기울어진 것이 좋다.

안경을 올바르게 선택하여 쓰는 것은 무엇보다도 귀중한 우리의 눈을 보호하여 눈이 더 나빠지는 것을 방지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다. ⑤

## 어린이 안경 고르는 요령



李相旭  
(서울강남병원 안센터 소장)

나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대답해 준다. “그런 좋은 약이 있다면 내가 지금까지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안경을 쓰는 것은 치료를 위한 것은 아니다. 이미 근시나 원시가 된 눈을 잘 보이도록 도와주는 방법에 불과하다. 다만 적당한 안경을 씌으로써 물체를 똑똑히 볼 수 있고 또 눈이 나쁠 때 생기는 여러가지 증상, 즉 머리가 아프다든지, 눈이 쉽게 피로하고 붉어지며, 심하면 메스껍고 토하기조차 하는 증상을 가시게 할 수 있고, 난시가 있을 때는 눈이 더 나빠지는 것을 막아 준다.

이와 같이 일단 근시나 원시, 난시 등이 생기면 눈에 맞는 정확한 안경을 써야 된다. 잘 보이는 안경이 반드시 정확한 안경이라고만은 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안경은 잘 보이기 위해 쓰는 것이니까 잘만 보이면 맞는 안경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력만 잘 나오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확한 안경이란 눈

눈이 점점 나빠져 안경을 쓰는 어린이가 늘어가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 중에서 대부분은 근시 때문에 안경을 쓰게 된다.

근시란 먼 곳은 흐리게 보이지만 가까운 곳은 잘 보이는 눈을 말한다. 선천적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후천적으로 생기며 한창 공부하고 있는 학생에게 많이 발생한다.

근시로 안과를 찾아오는 어린이들에게 안경처방을 해주면 흔히 부모들은 “안경을 쓰면 눈이 차차 좋아